

2024. 2. 1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양성평등일자리팀장	차미영	02-2133-5017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장	장민경	02-810-5234
관련 누리집	www.seoulwomen.or.kr (서울우먼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0매

오세훈표 「우먼업 3종세트」로 18만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 이끈다

- 서울시  일환...출산·육아로 경력 단절된 3040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 작년 2,714명 지원...그중 34.6%인 942명 취·창업 성공, 참여자 만족도 98.4%
- 올해 2,500명에 '구직지원금'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양육지에 기점 부여
-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최대 3개월간 기업 '인턴십' 제공해 취업 연계 지원
-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300만 원 '고용장려금'
- 2.19.(월)~3.8.(금) 우먼업 구직지원금 1차 모집...「서울우먼업」 누리집서 신청

육아로 15년 간 경력이 단절됐던 김OO 씨는 작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인턴십을 통해 3개월 간 일하며 일 감각과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성공했다. 김 씨는 "육아 때문에 전일 근무가 어려운 상황인데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하OO 씨도 5년의 경력단절을 딛고 얼마 전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길었던 경력단절로 다시 일터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웠던 이들은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이 단순히 취업 지원을 넘어서 온전히 나를 위한 응원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 서울시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2,610명의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임신과 출산, 육아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이기도 하다.

○ 서울시 경력보유여성은 18만 명(23년 기준)으로 이중 약 84%(15만 명)가 3040 여성(만30세~49세)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이 젊을 때 꾸준히 일하다가 50대에 은퇴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20대에 취업한 후 30대에 임신·출산 등으로 그만두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시 일을 시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거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59명’(22년, 서울 기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출산과 육아로 일터를 떠났던 여성들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①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30만 원×3개월) ②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생활임금×3개월) ③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300만 원×1회) ‘3종 세트’로 구성된다.

□ 작년에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참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보유여성 942명(구직지원금 904명, 인턴십 59명 *중복 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 우먼업 프로젝트 참여자 총 2,714명에게 지원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구직 지원금에 2,614명을 지원, 그중 904명(34.6%)이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을 지원하였고, 59명이 취창업(59%)에 성공, 그중 46명은 인턴십 연계 기업에 취업하여 해당 기업에 고용장려금도 지원하였다.
- 또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만족도는 구직지원금 98.4%, 인턴십 94.9%로 우먼업 프로젝트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해 참여자와 기업 모두 만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2023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지원인원 및 만족도

구 분	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인턴십	우먼업 고용장려금
지원인원	2,614명	100명	참여기업 46건
취창업인원	904명(34.6%)	59명(59%)	
만족도	98.4%	94.9%	96%

- 올해에는 우먼업 프로젝트 2년차를 맞아 사업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양육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3040 경력보유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자격증 전문강좌를 비롯한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구직지원금을 통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인턴십을 연계하고, 육아제도 확대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 인턴십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500명에 ‘구직지원금’ 주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양육자에 가점 부여>

□ 우선, 서울시는 올해 ‘서울우먼업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오는 19일(월)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작년 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3040여성들의 수요에 맞게 특화하여 올해 2,500명을 지원한다.

- 작년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3040 경력보유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으로부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고 904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 '22년 기준 만 25세~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42.6%이고, 경력단절 평균 발생연령은 29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평균 재취업 소요기간이 8.9년이 걸리는 데 비해('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미취업 기간 5년 미만 참여자가 65.3%로 본 사업을 통해 조기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또한, 만족도 조사결과 구직지원금에 대해서는 98%가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었고,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93.5%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 2023년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참여자 통계

참여연령	30~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14.7	27.1	34.0	24.3	
최종학력	고졸 미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0.7	12.0	23.2	52.5	11.6
미취업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 1년	1년 ~ 3년	3년 ~ 5년	5년 이상
	14.3	13.2	23.7	14.1	34.7
희망 근무시간	주 30시간 미만	주 30~40 시간	주 40시간 이상	상관없음	
	37.2	17.8	29.7	15.3	

- 특히 올해는 양육자를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육아와 경력복귀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자녀 수를 가점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올해는 ‘맞춤형 구직활동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구직지원금 신청 후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총 26개)에 구직 등록을 하면 우먼업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경력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경력단절 기간, 경력 조건, 전직 희망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 서울시 26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정보통신(IT/SW),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 보육, 문화·예술·디자인, 서비스 분야 등 올해 약 1,400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뿐 아니라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수료 후에도 구인-구직매칭, 직장적응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1,300명)은 2월19일(월)~3월8일(금) ‘서울우먼업’ 누리집(www.seoulwome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2차 모집 4.15.~4.30., 3차 모집 5.16.~31. 예정)
 - 지원 조건은 서울시 거주하는 만 30~49세(1974.1.1.~1994.12.31.) 미취창업 여성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1차 모집은 총 1,690명을 선착순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1,300명을 선정한다. 선정여부는 3월 28일 안내받을 수 있고, 구직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을 통해 구직등록 및 경력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을 필수 완료한 이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 구직지원금은 3개월에 걸쳐 매월 구직활동 이행 및 확인 후, 30만 원씩 지급(최대 90만 원, 우먼업 포인트로 지급)되며, 구직지원금을 받는 중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창업성공금 30만 원도 지급한다.(구직지원금 포함 최대 90만 원 이내)

※ 2024년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모집인원 및 추진일정(안)

모집	접수인원	선정인원	접수 기간	선정 안내
	3,250명	2,500명		
1차	1,690명	1,300명	2. 19. ~ 3. 8.	3. 28.
2차	780명	600명	4. 15. ~ 4. 30.	5. 24.
3차	780명	600명	5. 16. ~ 5. 31.	6. 25.

<취업역량 갖춘 경력보유여성 110명에 3개월 간 기업 ‘인턴십’ 제공해 취업 연계 지원>

□ 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마친 경력보유여성에게 3개월 간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1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3월 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4월부터 사업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 인턴십 참여자의 인건비(3개월, 프로젝트형은 2개월)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서울우먼업’ 누리집을 통해 인턴십 사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작년 우먼업 인턴십에는 100명이 참여해 이중 88명이 수료했고 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턴십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경우 만족도가 94.9%, 기업의 경우 인턴십 참여 후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비율이 96%에 달했다.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은 보유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단절 기간이 꽤널티로 작용해 서류심사 통과도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 우먼업 인턴십을 통해 직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올해는 취창업률 향상과 인턴십 후 고용 연계를 위해 인턴십 유형을 다양화한다.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과 경력보유여성을 매칭하는 ‘채용연계형’ ▲ 민관협력 사업으로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은 후 인턴십으로 연계하는 ‘프로젝트형’ ▲ 육아휴직 제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력채움형’으로 추진한다.

※ 2024년 서울 우먼업 인턴십 운영내용 및 추진일정(안)

구분	모집인원	운영내용	추진일정		
			기업모집	참여자모집	인턴십
채용연계형	80명	자격요건(경력, 자격증, 교육이수 등)에 따라 맞춤형 채용 지원	3~4월	4~5월	6~8월
프로젝트형	20명	기업 프로젝트 연계 인턴십	5월	6월	(교육,1개월) 7~8월중 (인턴십,2개월) 9~10월
경력채움형	10명	강소기업 육아휴직 대체 인턴십 지원 시범 실시 ※육아휴직 대체자 필요기업-경력단절여성 매칭	3~7월 (수시)	5~8월 (수시)	6~11월 (수시)

<인턴십 참여자 정규직 전환 또는 1년 이상 계약 기업에 300만 원 ‘고용장려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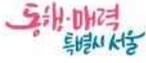
- ‘우먼업 인턴십’과 연계해 추진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는 양육친화기업 및 장기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우먼업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울우먼업’ (www.seoulwomen.or.kr)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대표전화(☎1660-304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경력단절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출산과 육아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났던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여성들이 언제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취·창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3040 경력보유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 붙임 : 1.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포스터
2.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관련 사진



경력을 살리세요 능력을 펼치세요

2024 서울시가 3040 여성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30만원×3개월

진로 탐색 및 커리어 설계 지원
취·창업 역량 개발 교육 제공
취업알선

1차(2월), 2차(4월), 3차(5월) 모집 예정

우먼업 인턴십

생활임금×3개월

채용연계형
육아휴직 대체근로형
프로젝트형

최대 3개월 지원

우먼업 고용장려금

300만원×1회

인턴채용 기업에 인센티브
일생활균형지원 컨설팅 지원

채용 연계 3개월 후 지급

서울우먼업



< 2023 서울우먼업 페어 토크콘서트 인사말 진행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



< 2023 서울우먼업 페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